

北, 동창리 ICBM발사대·신포 SLBM시험장 폐기 여부 관심

핵실험장 이어 미사일 시설 폐기 땀·미사일 동결 가시적 조치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이 파괴중이라고 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관련 시설 폐기 절차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는 "그들은 특정한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을 제거할 예정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혀 주

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장소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을 제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국제적인 시선이 모인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언급대로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의 제거에 나선다면 이는 핵실험장 폐기에 이은 조치로, 핵-미사일 동결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대형 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대형 발사대,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인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장, 평양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 등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에 장착되는 로켓엔진 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구성시 이하리에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의 지상 시험용 발사대를 폐기한 바 있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3일 "한미가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미사일 시설에서 아직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폐기 대상 미사일 시설로는 ICBM급 미사일 엔진시험이 이뤄진 동창리 로켓

시험장과 장거리 로켓 발사대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작년 3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연소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3·18 혁명'으로 극찬하고 엔진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를 업어주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력 80tf(톤포스: 80t 중량을 밀어 올리는 추력)로 추정되는 이른바 3·18 혁명 엔진은 IRBM급 화성-12형의 엔진으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됐고, 작년 5월 14일 이 엔진을 장착한 화성-12형이 성능을 입증했다. 이후 발사된 ICBM급 화성-14·15형도 1단 추진체에 3·18 혁명 엔진을 장

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함경북도 동해안의 신포 조선소 인근에선 주로 SLBM 시험발사와 엔진시험이 이뤄진다. 북한은 작년 8월 신포 앞바다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신포에서 SLBM 개발을 위한 미사일 엔진 지상 분사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평양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종합 연구단지 폐기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곳에서는 그간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함께 엔진 시험이 진행돼왔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평양 산음동 연구단지에선 주로 실내에서 미사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실내 시험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장에 이어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 관련 미사일 시설 폐기에 나선다면 이는 역으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완성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자칭 '핵보유국' 선언을 한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성공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종거리 핵실험장 폐기는 핵 기술이 완성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전면 폐기한다면 ICBM과 관련한 엔진 고출력 기술과 클러스터링(엔진 결합)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미 공동성명후 로드맵 촉각 초기 비핵화가 최대 관전

미 폼페이오-북 리용호 파트너 3~6개월간 주고받기식 진행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이 주고받기식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주목된다. 우선 정상회담 때 공개된 대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급 관리간 후속 협상이 차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가 될 전망이다. 아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북미 간 후속 만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 파트너로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동성명 가운데 4개항 합의인 ▲평화·번영의 새 북미관계 수립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비핵화 노력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 유해발굴 이행과 관련해 북미가 어떻게 주고받기를 할 것인지가 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미국측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 중간 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로드맵이 짜일 것이라는 추론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외교 성과물로 활용하기 위해 연말 중간 선거 때까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한편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 승리하기 위해 그 시점에 맞춰 북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도 다음 단계의 추가적 선의의 조치'를 언급

하면서 이행 의지를 밝힌 만큼 차후 3~6개월간 진행될 초기 단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미 조야에선 북한이 핵탄두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의 해체, 폐기, 국외 반출을 해주길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핵시설 및 핵무기 제조를 시작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아 나가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관리간 후속 협상의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 신고 및 검증,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등의 북한 복귀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공동성명 서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른 시일 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이 이뤄질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런 주고받기식의 3~6개월 로드맵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이행된다면, 그 이후 조치로 본격적인 사찰과 검증을 통해 CVID 확인 작업을 할 것이고 그에 조응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북안전 보장'(CVIG)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CVIG로는 종전선언(불가침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의 정치적 조치 이외에 경제제재 해제 등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CVID와 CVIG가 2020년에 갈끔하게 종료된다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볼턴과 악수하는 김정은” 北 노동신문 보도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악수하는 모습을 1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재팬패싱” 몰린 日, 북과 대화 원하지만... 일본인 납치문제 등 견해차 “전망 불투명”

일본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견해차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2일 밤 기자들에게 납치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가면서 일본이 북한과 직접 마주 보며 해결해야 한다”며 북일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성명에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오는 14-15일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울란바토르 대화’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회의에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의 참사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8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에서 북일 외무장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본 언론은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경우 아베 총리가 만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일본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접촉을 여러 경로로 모색하는 것

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현실에서 북일 외무성 루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며 “아베 총리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 정보관이 이끄는 정보기관 계통 루트도 활용해 북한과 물밑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니혼게이샤는 신문에 납치 피해자의 전원 즉시 귀국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이 논의에 응한다 해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양우내안 **백운광장역 상가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5일 내정가 공개입찰

상가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